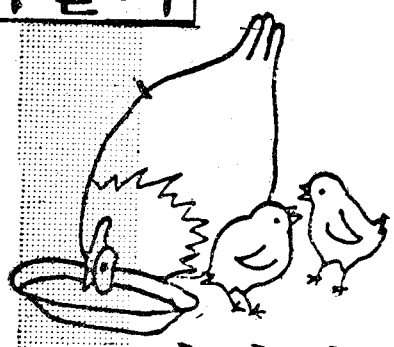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8월

정 근 기
〈영남대 축대 교수〉

3. 환경위생

환경위생은 닭의 기능에 제변이(諸變異)를 일으키는 자연적 조건 즉 계절적 및 기후적으로 좋지못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되는 부문이 많으나 실제적인 부문만을 간추려 설명키로 한다.

1) 환경과 계사

닭이 온도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닭이 높은 외기온에 갑자기 접할때에는 상기한 양자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정상적인 닭의 체온은 41~41.5°C인데 이 체온이 환경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닭은 환경변화에 따라 체온을 조절하는데 약 3~5일이 걸리고 호흡율을 조정하는데는 더 오랜기간이 필요하게 되며 8~10일쯤 지나야 여러가지 온도에 대해서 안정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산란하는 닭의 몸기능에 대하여는 최적한 기후적 환경이 있는데 이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의 폭을 좁히고 개선하는 것이 지난달에 설명한 여름기간 여러가지 나쁜 결과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계사구조, 조건, 위치등에 따른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온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능한 조처를 해줌이 좋다.

(1) 신선하고 찬물을 계속하여 먹을수 있도록 해준다. 급수통의 물을 자주 갈아 주는 것도 한방법이 된다.

(2) 계사내나 계사에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는 적절한 그늘을 해준다.

(3) 반사물질(反射物質)로 계사의 지붕과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준다.

(4) 최대의 환기를 시켜주도록 한다.

(5) 온도가 32°C 이상 상승했을 때에는 계사내 및 지붕위에 분무기나 스프레이장치 등으로 물을 뿌려준다.

(6) 계사주위에 잔디같은 키가 짧은 풀을 심어준다.

(7) 천정에는 단열재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열을 막아 주도록 한다.

(8) 계사내에 선풍기 또는 환풍기를 설치해서 공기의 이동을 시켜준다.

계사의 구조, 조건, 위치는 계사를 건축할때 부터 충분한 고려가 뒤따라야 하고 불합리한 계사구조가 여름철의 환경위생의 개선을 곤란하게 하고 또한 개선하는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고온으로 인한 많은 폐사와 질병발생등 경제적 손실로 양계를 그만두어야할만큼 실패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계사건축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몇가지 점을 부언해 두고져 한다.

(1) 배수가 잘되고 건조한 땅을 선택할것. 배수가 잘 안되는 땅은 습기가 많고 여러가지 병원체를 번식시키는 온상이 되며 여러가지 전염병, 기생충 등의 발생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된다.

(2) 풍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할것.

여름철에는 최대의 바람이 계사내로 들어오도록 하고 겨울에는 막

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다. 풍향을 고려치 안했을 때는 개방계사라 해도 계사내의 공기가 정체하여 환기상태가 좋지 못하다.

(3) 창문의 크기를 충분히 할것.

계사의 위치를 풍향을 고려하여 세운다 해도 창문의 면적이 적절하지 못하면 충분한 바람을 받지 못한다. 적어도 바닥면적 25~30m²에 창문면적은 최소한 1m²이어야 한다. 그리고 천정의 환기공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4) 천정에는 반드시 단열재를 사용할것.

단열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값싼것을 택하되 최소한의 단열효과를 갖도록 두께를 정해야 한다.

(5) 출입문 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할것. 계사구조의 일부로서 설계하여 적당한 크기의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일반계사 관리

여름철의 환기조절을 충분히 하기위하여 천정환기공과 창문을 늘 활짝 열어 놓도록 한다. 단 비가 올때는 계사내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개폐를 조절한다. 이것은 과도한 습기와 암모니아 깨스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망을 사용하고 있는 계사는 망에 먼지나 털같은 것이 붙어 구멍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솔로 매일 털어주어 공기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평사인때는 습기가 끼여 늑늑하거나 딱딱하게 된 덩어리 자리깃을 자주 갈아 주어야 할 것은 물론 전자리깃을 가끔 뒤져주는 것도 좋다. 난상내 깔짚도 똥등으로 오염된 것은 갈아주거나 털어준다. 급수기 혹은 급수통은 매일 아침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고 2~3일에 한번쯤 닭에 해(害)가 없는 소독약물로 씻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입문 입구 소독조에는 항시 소독약물이 있도록 하고 3일에 한번씩 새 것으로 갈아주도록 한다. 케이지 사육경우에는 한층 묶은똥 배설과 암모니아깨스 발생이 심하게 되므로 통풍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케이지 밑에는 톱밥이나 소석회같은 것을 뿌려주어서 물똥으로 부터의 수분을 흡수시켜 주고 분(糞)을 가능한 자주 제거시켜 주면 좋다.

3) 계란취급

여름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계란의 취급이 중요하게 된다. 생산되는 계란은 오염되거나 똥같은 지저분한 것이 묻지 않도록 상기한 바와 같이 관리여건을 해주어야 하고 계란은 기공을 통하여 세균이나 바이라스가 내부로 들어가 품질을 떨어뜨리므로 오염된 계란은 깨끗한 계란과 분리해서 집란(集卵)하자마자 곧 솔이나 페이빠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하거나 만일 씻을 때는 계란세척용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48~54°C정도가 좋고, 계란은 3분이상 물에 잠겨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온도가 32°C, 이상일때는 매 2시간마다 자주 집란해서 계란저장소로 빨리 옮기는 것이 좋다. 저장소의 온도는 13~15°C, 상대습도 70~75%가 유지되도록 함이 좋다.

4. 질병예방

닭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은 양계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필수사항의 하나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질병발생의 요인을 미리 제거시키는 효과적인 위생을 위해서 항상 실시 또는 노력해야 할 필수요건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양계장내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 동시에 계사내 출입자는 더욱 철저히 제한한다.

(2) 계사관리자는 양계장에서 위생작업복으로 반드시 갈아입고 계사내 출입시에는 입구의 소독조를 꼭밟아야 한다. 그리고 계사내에서는 신발을 따로 갈아신어야 한다.

(3) 계사주위 1m이내는 수시 소독제를 분무기 등으로 뿌린다.

(4) 한계사내 관리자는 다른계사내에 절대로 출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관리자의 집에서는 양계를 못하도록 한다.

(5) 계사는 철망을 쳐서 곤충류 침입을 최소한 막도록 하고 쥐 및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항상 주의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계사내에서 나오는 깔짚, 똥 및 기타 노폐물은 계사에서 멀리 떨어진 한장소에 처리한다.

(7) 계사내에 죽은 닭을 오래방치해 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시 따로 설치된 지하처리장에 버리거나 소각토록하고 병계가 발견될때도 즉시 격리처리토록 한다.

(8) 계사내 기구는 항상 규칙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9) 병아리는 신용있고 위생적인 부화장에서 구입을 하고 여기저기서 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10) 병아리는 성계사와 멀리 떨어진 육추장에서 사육한다.

(11) 육성계와 성계를 한계사에서 칸막이하여 사육하지 않도록 한다.

(12) 새로운 계군이 들어올때마다 예방접종 계획을 만들어 차질이 없도록 실시한다.

(13) 닭에 스트레스요인은 항상 없애도록 노력한다.

(14) 한계군이 끝난후 빈계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반 소독방법에 준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